

▶ 전주국제영화제,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 특별전

분단의 역사
개인의 구원
사회적 타락

인간과 사회
미시적 관점으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지)는 한국영화사의 거장인 작가 송길한의 특별전을 마련한다.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전은 전주국제영화제가 관객들에게 매년 세계의 거장 감독이나 국가를 소개하고 영화의 마스터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왔던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특별전을 준비한 김영진 수석프로그램머는 "작가 송길한은 현대 한국 영화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임권택 감독과 함께 작업한 '짜코' '만다라' '길소뜸' '티켓' 등의 작품은 분단의 역사, 개인의 구원, 사회적 타락 등의 소재를 폭넓게 관통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이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그밖에 '우상의 눈물' '안개마을' '나비 품에서 울었다' 등 당시 한국영화 의무제작 시스템 아래서 제작된 영화들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거시적·미시적 관점으로 동시에 포착하는 날카로운 작가적 안목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배경을 밝혔다.

'스페셜 포커스: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에서는 뛰어난 성취를 남긴 시나리오 작가의 궤적을 고루 보여주기 위해 1970년대 작품 실태호 감독의 '둘도 없는 너', 조관수 감독의 '마지막 날의 언약'부터 임권택 감독과 함께 한 '길소뜸' 등의 중기작과 1992년 작품 이장호 감독의 '명자 아끼고 쓰냐'에 이르는 후기작까지 총 12편을 상영한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 눈여겨 볼 만한 작품은 1984년에 제작을 시작하여 불교계의 반발로 제작이 중단되었던 '비구니'(감독 임권택)로 부분 복원되어 특별 상영된다. 출가한 여인의 번뇌, 구원을 향한 일생의 여정을 담은 이 작품은 관계자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어 함께 상영된다.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시도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불발되었으며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영화 표현의 해방을 몸소 실천한 작가 송길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와 시네마 클래스도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 비구니

↓ 둘도 없는 너



▶ 공연 & 전시 ◀



19일 판타지 뮤지컬 '똥다 심청' 개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의 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똥다 심청'이 19일 정식 개막한다.

재단의 신작 '똥다 심청'은 한국의 대표 고전 심청이야기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결합된 창작뮤지컬로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점점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재단 공연관계자는 "똥다 심청은 감성의 소리를 통해 깊은 사랑과 희생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행덕과 황천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극은 해학과 풍자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극은 전통적 선율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 드라마틱한 음악, 판타지 3D 입체영상, 바다와 연꽃을 연상하게 하는 화려한 무대, 스토리를 극대화 하는 역동적인 안무, 고전미가 돋보이는 의상, 맛깔스런 감초들의 해학적 연출 등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상설로 열린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

한편 19일 오후 5시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에는 영화가 아닌 무대연출에 새롭게 도전하는 장선우 총감독과 재단의 청년문화예술대학 연기아카데미에서 특강을 맡은 영화배우 안성기가 함께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공연티켓은 17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2만원. /정해은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성남시립국악단과 '동음동행'

전주시립국악단의 제200회 정기연주회 '동음동행'이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과 성남시립국악단의 교류음악회로, 같은 곳을 함께 가는 동행의 뜻처럼 전주·성남시, 전주·성남시립단인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취지로 두 지역에서 번갈아 열리게 된다.

연주회 프로그램은 관현악 '아리랑', 거문고 협주곡 '꿈속에서', 이성강류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 참과 관현악 흥부가 중 '박터령, 제비노정기', 관현악 '신밧놀이'로 구성된다.

관현악 '아리랑'은 전 국민에게 애청되는 아리랑을 환상곡 풍으로 만든 것이다. 곡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지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잘 표현돼 있다. 선율은 우리 민족의 영광의 미래를 표현한 듯 서정적이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리듬의 유희를 위한 놀이적 음악 '신밧놀이'는 전통음악에서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요소인 장단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형화시켜 그 위에 경기 뱃노래의 선율을 테마로 차용했다. 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기상을 표현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기접놀이의 발자취 돌아보기

20일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서
기접몽-우리의 꿈 공연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기접놀이'가 야외무대 공연이라는 통념을 깨고 실내 공연장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전주기접놀이는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기접몽-우리의 꿈'에서 고사 및 기록영상으로 기접놀이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기접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벌이

던 민속놀이로 용기놀이라고도 불리며, 매년 정월 대보름과 백중일에 행해지고 있다. 기접놀이는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웃마을의 손잡잡대, 판굿, 용기이어달리기, 용기놀이, 용기부딪치기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연에선 80여 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세계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려는 전주기접놀이의 꿈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축하공연에선 소고명인 김운태 씨의 소고춤, 전북도립무용단의 버꾸춤, 문모두 외 4인의 민요와 합곡마을의 풍물연화가 펼쳐진다.

공연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정해은 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군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현황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